


공동체 소식



대림 제1주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11월은 '위령의 달' 입니다.

- 위령의 달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달입니다.

대림시기 안내

- 이번 주일(11/27)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와, 대림 시기의 시작입니다.
- 전례안내: 대림시기 동안, 대축일미사를 제외한 미사 전례 중에 '대영광송'은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신비어'는 '나'양식과, 성가 373번 2절로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 내용: 소공동체 봉사자인 반장의 주요임무는 반소속 가정들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별로 반모임 날짜를 정하고, 반별 형편에 따라 모임을 진행 바랍니다.

본당 대청소 [일시: 대림 제1주일, 11/27]

- 청소구역: 여성-실내(성당, 지하)청소, 남성-실외(성당주위, 주차장)청소.

구역장 반장 회의

- 일시: 11/27(주일) 본당대청소 후, 본당 나자렛관
- 대상: 소공동체 봉사자 (구역장, 반장)

신심미사 전례에 대한 안내

- 예수성심미사 : 12/02(금) 오전 10시, 미사 30분 전 '십자가의 길'기도 시작.
- 성모성심미사 : 12/03(토) 오전 10시, 10시에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시작.

구역별 판공면담 및 성사 - 일정과 장소

- 일정: 1구역: 12/9 (금) 저녁07:00-09:00,
2구역: 12/10 (토) 저녁07:00-09:00,
3구역: 12/16(금) 저녁07:00-09:00,
4구역: 12/17(토) 저녁07:00-09:00,
-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91	217	166	88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
	김정원 안젤라	-
차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장보혜
차주	김명은, 한춘희,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20	70명	330불	800불
(총 3 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1,450불, 총합계: 7,550불		

성탄 꽃봉헌 받습니다.

- 기간: 11/27(주일) - 12/4(주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에 자녀들을 모아들이시고자 진리의 스승이시며 화해의 샘이신 외아드님을 보내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깨어 기다리는 영을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자유와 사랑의 길을 걸어 마침내 주님을 뵈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성화해설

갯세마니에서의 고뇌 중 잠든 제자들<부분>

(듀치오, 1308-1311년, 나무에 템페라, 피렌체 두오모 박물관, 시에나)

오늘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첫주이며 서울대교구 생명수호주일입니다. 구세주의 강생은 인간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탄은 모든 출생의 완전한 의미를 밝혀주는 것으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토대가 됩니다. (「생명의 복음」 1항) 인간생명의 가치가 드높여지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화 답 송 :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11-14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7-44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쉐 마

늘 깨어 있어라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이 두 가지 기다림을 모두 표현합니다.

먼저,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세월이 흐른 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이사 2,1-5).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길을 배울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모든 민족들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화해하여 한 나라, 곧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당신께로 모여드는 것이 하느님 계획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께서도 당신과 함께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났음을 선언하십니다(마태 4,17).

하지만 하느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다시 오실 날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마태 24,37-44).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당신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비로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오직 그분의 뜻으로 통치되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세상 마지막 날, 곧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은 갑작스럽게 닥칠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이 이미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야기합니다(로마 13,11).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기에, 또 그렇게 2000년을 기다려왔기에 재림에 관한 그분 약속에 많이 둔감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재림이 오지 않으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하느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이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로마 13,12)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림시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루카 13,27)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대림시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대림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새기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 실로 결정적인 시기에 살고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이 순간순간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믿음을 갖고 깨달아 알아 가는 감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준비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한 목표에 맞추어 주님의 오심에 대해 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로마 13,11 참조)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이 있는 산으로 밀려드는 광경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이웃과 함께 깨닫는 기도 생활이 대림 시기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시기와 질투와 전쟁보다는 주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인 주님의 말씀과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대림 시기 동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공동체에 활력을 주시는 성삼위 신비를 충분히 깨닫고 알아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삶보다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변 이웃들과 기도 생활을 함께하면서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창조와 구원을 성화시켜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깨달음을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실현시킨다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의 감수성을 계발하고, 정의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훈련된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맛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업적을 깨닫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발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로마 13,11)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복음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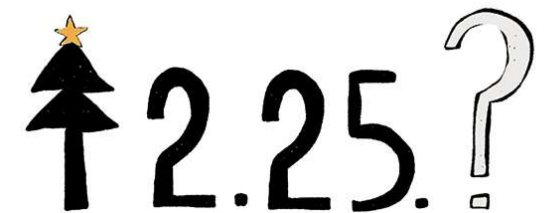
설마...

설마 12월 25일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설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 생각해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해결해줄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24,44)

- 임의준 신부 3